하나님 3중 충만의 기도

(출15:22~27)

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3중 충만의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3중 충만의 기도'
하나님이 3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도를 가리키고, 기도의 내용을 암시하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중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충만해지시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충만해지시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우리 행위에서 하나님이 충만해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3중 충만으로 사는 것이 선민의 올바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기대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충만하고 삶에서 충만하고 행위에서 충만한 트리플 하나님 충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십자가 주기도문인데 십자가로 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3중 충만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지시하고 암시하는 십자가 주기도문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요청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를 오늘 한 번 해보게 되는데, 주기도문을 강해 식으로 길게 연구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기도문을 늘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명하게 의미를 이해하며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강해는 홈페이지도 있고 마태복음 오늘의 번제에서도 참조하시되 문제는 한 구절을 가지고 한 시간씩 하는 그 긴 강해를 가지고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일상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기도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3중 충만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생활화하기 위해서 살펴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본문을 이해한 뒤에 이것이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믿으시고 이 주기도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갈증'과 '충만'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갈증에 시달리며 원망이 일어나고 또한 마라의 기적 사건이기도 한데, 이것과 연관해서 갈증과 충만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갈증 합니까? 충만하지 못하니 갈증이 나고, 갈증은 충만을 향해 가도록 되어 있고, 또 충만은 갈증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주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 마음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단 한 가지만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에 나가서 돈 잘 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성립 불가한 것은, 마음에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 질 수는 없고, 또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불가한데, 목회가 마음에 들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분은 목회 충만해진 목사님으로 목회를 성공하겠다는 갈증으로 인해서 목회가 지금 마음에서 충만해지고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 안 됩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것도 불가한 이유는, 이미 사업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이고, 사업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타난 지혜가 '성령을 끌어 들여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세상 것들은 마음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공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과도 공존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충만이 가능해지는데, 우리는 매일 마음에 다른 것을 집어넣고 그것을 위해서 충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충만도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갈증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갈증은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예를 들어 돈을 담았다면 갈증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손에 쥐기 위한 갈증이 생기는데, 무엇이든지 마음에 담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 마음에 담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명사(名詞), 즉 이름을 담는다고 했는데, 문법에서 명사는 우리말로 '이름씨'입니다.
우리는 아들, 딸, 부모, 형제를 직접 마음에 담을 수는 없고 그들을 명사로 변화시켜서 담습니다. 부모님, 아들, 딸, 남편, 아내, 사업, 돈, 건강 등이 다 명사입니다. 이러한 명사가 들어왔을 때에 들어와 있는 명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쥐고 싶기 때문에 갈증이 생긴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주기도를 이해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기억사항입니다.

이러한 기본지식을 갖고 주기도를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이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이외에 사업, 건강, 가족, 친구문제, 취미, 갖고 싶은 것 등 어떤 것이든지 다른 명사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충만해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사만 남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명사에 대한 나의 집착이 다 죽어서 그 명사들인 이름들이 지워질 때에라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에 '내 가족'이라는 명사가 들어와 있다면, 그 명사가 가리키는 실재인 가족에 대한 갈증인 우리 가족이 잘 되어야 되겠고, 우리 가족이 부자로 살아야 되겠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명사가 없어지면 아무런 갈증이 남지 않게 되고, 십자가는 세상 모든 명사에 대해 죽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명사만을 남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십자가 때문에 쫓겨난 모든 명사들은 삶의 주변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명사를 몰아냄으로 내 생각과 갈증이 죽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라는 말을 하면서 사회 운동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서 몰아낸 명사들이 가리키는 존재가 나의 삶에 가득한데,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내가 뜻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셔서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시는데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내 삶의 환경에 하나님이 충만해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가시게 되면, 이제 내게는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전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마음의 명사로서 들어온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나의 뜻을 표현하면서 행동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명사들이 다 죽고, 그 명사들이 가리키는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고, 할 일이 없어지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장갑삼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내가 할 일은, 승진하고 실적을 쌓는 것의 모든 명사를 다 죽이고, 내 주변의 직장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충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장갑삼아서 하실 것이고, 그럴 때에 내 행위에서도 하나님이 충만해지신다는 것이므로 이 기도를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충만이 이루어질 때에 충만을 유지하는 위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지출하는 돈 말고는 돈의 지출항목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지출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지출하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있는 돈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없는 돈에 대해서도 죽는 것입니다. 돈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싶다고 여기다보면 돈 충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충만은 끝나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돈(물질)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된 것이고, 물질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에 대한 가장 큰 첫 번째 대적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으라는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살아서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내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판단 기준에 안 드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에 모든 판단의 기준을 제거해버린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 죽고 돈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삶에 충만해서 이끌어 가실 때에, 도저히 나의 상식으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으므로 이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삶의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 죽고, 사람에 대해 죽고, 환경에 대해 죽으면 마음에 충만하시고 삶에 충만하시고 내 행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충만이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나쁘게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원수도 내게 유익할 수 있고, 또한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내게 큰 타격을 주고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호불호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을 못해서 이스라엘에 오늘의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이 기도를 잊지 않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라의 기적을 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는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 했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신 기적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주저 없이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물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생존하기 위해 필수조건으로서의 물 공급이라는 차원에서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은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 공급을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시작된 선민들의 역사의 벽두에서 잊지 말아야 될 영원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갈증과 충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마라의 기적은 참으로 억울한 기적입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도하한 후에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거리를 생각해보면 75km를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고,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걸어서 25km씩 걸었다고 생각하면, 한 시간에 3km정도씩 걸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엘림에 도착했을 때에 신선한 물이 퐁퐁 솟는 물 샘 열두 개가 있었고, 커다란 그늘을 드리우는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어서, 200만이 다 쉴 수는 없을지라도 노약자들이 쉴만한 준비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쓴물이 있었던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0km 정도로 이들의 느린 속도로도 3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불평하지 않고 참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물 없어서 죽이시겠냐? / 홍해에서도 살리셨고 애굽 군대로부터도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서로 독려하면서 3시간만 더 걸었다면 엘림의 그 종려나무와 신선한 물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 한 번 홍해를 건넜을 때에 감격해서 불렀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데, 마라에 와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게 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고, 물을 다 마시고, 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에 물을 담고 쉬었고 다시 출발했는데 3시간 만에 엘림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엘림을 맞이했는데 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surprising 선물과 surprising 은혜가 무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하루에 8시간씩 걷다가 쉬고 출발했는데 3시간 만에 또 쉬어야 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지수가 0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라에서 불평이 나오고 갈증이 시달릴 때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물 때문에 생긴 갈증이 선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갈증을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갈증은 마음의 잡동사니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마음에 아들, 딸, 건강, 사업이 명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명사가 가리키는 사업장 그 자체는 잡동사니가 아니고, 딸이라는 명사가 가리키는 존재 자체는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신 귀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명사로 내 마음에 집어넣으면 내 마음 안에서는 잡동사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안에 들어와야 할 이름은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비하면 다 잡동사니이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잡동사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잡동사니가 들어있으면 갈증이 일어납니다.
마라의 쓴물의 상태는 내가 마음에 사업이라는 잡동사니를 넣어서 생긴 갈증을 풀 수 없는 현실을 말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이 잘 돌지 않는 것이 바로 마라의 상태입니다. 이때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10km구간에서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에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삶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행위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갈증이 일어났다는 사건이 어떻게 충만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난데없이 나타나셔서 25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라고 하십니다.
아직 시내 산에 도착하지 못했으니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용에 대한 소개도 없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내가 준수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은 돈으로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시면서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말씀하셔도 하나도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충만해있기 때문에 지키기 못하는 것이고 마음이 가족과 건강 문제로 충만해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애인으로 충만해서 애인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에는, 애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서 애인이 마누라로 바뀌고 난 후에는 남편의 마음이 승진 걱정, 실적 걱정으로 차게 되므로 그럴 때에는 애인이었던 사람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맞춰주기가 힘들어집니다.
애인일 때에는 갑자기 바다 구경하러 강릉 가자고 하면 차가 없어도 고속버스 타고 갑니다. 충만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속의 상태를 알려고 하신다는 것인데 법도와 율례로 무엇을 알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지, 아닌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환경적으로 내가 마음에 돈을 집어넣고 있으나, 돈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상태로, 내가 싫어하는 삶의 조건이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잡동사니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이므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달라고 했다가는 엘림에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색해져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다 계획이 있으시고, 엘림이 바로 삶에서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사건이고, 법도와 율례도 행위의 충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충만과 삶의 하나님 충만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마라의 쓴물 같이 내 삶의 환경이 원치 않는 상황으로 주어졌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충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갈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잡동사니인 다른 명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의 10km는 이제까지 걸어온 거리에 비하여 짧은 거리이고, 이 거리를 걸어가며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들어온 잡동사니를 제거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내 마음에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세 시간의 10km 거리

였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 동안에 나로 하여금 갈증이 나게 하면서 삶에 대해 불평이 나오게 하는 이유를 파악해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이 되는 것 같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돈을 달라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돈에 대해 갈증이 느껴지니 내 마음에서 돈을 제거하고, 힘들지라도 문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하고 잡동사니를 빼내야 한다는 기도를 엘림까지 가는 10km 구간 동안에 하는 것으로, 이 기도를 해서 엘림에 도착할 즈음에는 내 마음에서 갈증을 느끼게 하는 모든 명사들이 다 죽어버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사만 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만해지고 나서 눈을 떠보면 엘림이 보이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엘림처럼 부족함이 없이 보일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 상황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처럼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행위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에 마라 같은 상태가 주어질 때에, 절대로 그것에 달려들어서 이 상태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삶에 잡동사니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원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계셔야 될 내 마음에 다른 명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그 명사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의 이름만이 내 마음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만 남아야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가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리는 이 주기도를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마라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원망이 나올 때에 율례와 법도로 행하라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지 점검하라는 것이고, 충만하면 지킬 수 있고 내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충만해지십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마음의 하나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 구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죽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악입니다.

갈증과 충만의 관계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환경에 대해 갈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에 마라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 주기도를 통하여 3중 충만을 누리시기

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주기도를 일상화함으로써 하나님의 3중 충만을 단 한 순간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는 지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